자기소개서

소 속		직 위		성 명	○○○

1. 성장배경

- 어머님의 정의감, 가슴 따뜻함은 나의 본향이면서 내 평생을 가로지르며 흘러가는 커다란 강이다. 아버님의 말년은 도인의 삶이셨다. 어머님으로부터 발원한 강이 바다로, 해인삼매로 흘러가야 함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해와 같다더니 한치도 틀림이 없다. 이제 나이 60에 접어들면서 바다에 들어 익어 가던지, 삼매에 들던지, 말던지, 따박따박 걸어 가지고 있다. 힘 빼고 그냥 걸어가지고 있다. 삶이 공부다.
- 1984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것이 나를 형성하는 큰 계기기 된 것 같다. 84년은 전두환이 광주를 학살하고 폭압 국면을 유지하다 내외의 저항에 소위 유화 국면을 시작한 해이다. 대표적인 유화 제스처는 대학 안에 진주해 있던 경찰들이 학교에서 나가게 된 것이 다 이를 기점으로 대학은 해방구가 되어 독재 타도의 진지가 된다.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데모로 시작해서 졸업 때까지 데모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대학 이후의 삶은 어쩌면 그 당시 죽어 갔던 열사들이 나를 밀고 왔는지 모른다. 2004년도 대안교육에 발을 들인 것도 마찬가지다. 가끔 꿈처럼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문익환 목사님께서 열사들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절규로써 호명하던 모습이 소환된다.

2. 교육철학

1) “두려움”에 맞서는 교육

- 인간의 기본 작동 동력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용기다. 두려움에 맞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 ‘용기’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용기 교육은 실패를 통해서 길러진다. 실패할 기회를 주는 것은 행위 주체성과 연관된다.
- 두려움에 맞서는 교육의 정반대의 교육은 욕망을 자극하는 교육이다. 우리가 꿈을 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의 꿈은 그 당대에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소유하거나 성공 한 인생을 꿈꾸게 된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대단한 것 등 욕망을 부풀리는 것이 꿈을 가지라고 채근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

2) 일상과 현재의 위대함을 깨닫는 교육

- 불안을 통해 욕망을 부추기는 교육의 문제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삶의 가치를 몰라보게 한다. 인간의 삶을 세세하게 미분하자면 소소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

다 죽음조차도 그렇다. 대단한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소소한 것들이 위대한 것들이 되고 삶은 신비가 되는 것이다. 인간 삶의 실재는 이런 소소함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은 자기가 당장 누리고 있는 보석을 보지 못하고 늘 추구하고 갈증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 성찰해보아야 한다. 갈증을 유발하고 또 거기다 소금물을 마시라고 부추기는 것이 한국교육의 요즘이 아닌가 성찰해보아야 한다. 공자의 제자 중 안연을 공자가 상찬한 이유를 되새겨 봐야 한다.

"너 자신을 돌보고 네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듯 타인도 그렇게 되는 삶을 여기서 구축해 나가야 한다."

3. 고산고 교장으로서의 포부

1) 대안교육의 경험 나누기

- 나는 비인가 대안교육을 초창기부터 열정을 들여 해왔다. 나의 딸도 초중등 비인가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31세의 어엿한 청년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 20여 년의 비인가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주변을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서로 도와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이런 성과를 그냥 거기에만 놔두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고, 공교육을 보는 마음 또한 너무 안타까웠다.
- 그러던 차에 고산고와 인연을 맺게 됐다. 처음 고산고에 발을 들여놓을 때 선생님들과 교육철학의 차이로 임기 내내 토론의 연속일 거라 예상했다. 물론 그것만이라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산고에 왔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 우리 고산고 선생님들의 우수함으로 인해서 실로 많은 일을 해 왔다. 꿈에만 그리던 마을교육의 가능성도 보았다.
- 그간 3년의 세월이 아직 대세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언제든지 기존의 체제에 빨려들어가 사라져 버리기 쉬운 상황이다. 아직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

2) 구성원들의 주체적인 역량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 그중 가장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룩해야만 하는 것은 각 주체 학생·교사·양육자·마을의 행위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변화는 빠르고 내용도 완전하게 새로운 것들이 밀려올 것이다. 이럴 때 고산고가 온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교사회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다. 3주체가 자기 물리력을 기반으로 다르게 그러나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 교사회도 양육자회도 학생회도 마을도 자기 물리력을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 지금 교사회는 민주적 리더쉽이 학년 단위로 구축 되어져 가고 있고 양육자회도 구축되고 있고 학생회도 마을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안정되게

큰 흐름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을 더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중임을 결심하였다.

3) 함께 대화를 나누는 리더십

- 한 조직은 두 가지 힘, 원심력과 구심력이 동시에 작동한다. 이 둘이 적절하게 긴장과 타협으로 중도의 위치에 있을 때 조직은 건강하게 생명력을 유지한다. 비인가 진영은 원심력이 상상 이상을 초월한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나 정해져 있는 진공묘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구심력이 지나칠 때는 독재라고 원성이 자자하고 원심력이 쎌 때는 학교가 대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는 교장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한다.

- 그러나 고산고는 원심력과 구심력이 제도로 안정되게 구조화 되어 있다 이에 고산고에서 운영과 리더십은 각 단위 부분 조직에서 자체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 생각한다. 관리자가 불필요하게 긴장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닫힌 구조 속에서 구성원들은 원인 모르게 긴장하게 될 수 있다. 지적할 것들은 가득하다. 그러나 지켜보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친절하게 경청하고 도와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고산고에서 과제는 각단의 지도력이 왜곡되게 작동되거나 나태해질 때 관리자가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가 과제인 것 같다. 결국 당사자와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들을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子曰爲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共之(위정이덕비여북신거기소이중성공지)**
북극성이 그곳에거하면 뭇별이거기에향함

결국 리더십은 내가 깊어지고 넓어져서 如如하게 존재 하는 것이다.